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연결하는 끈과 고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 종교개혁자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다른 어떤 개혁자보다 강조했다.

##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교리문답에 대한 비교 연구: 루터, 후프마이어, 칼뱅의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박경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 I. 서론

왜 교리문답이 중요한가?<sup>1)</sup> 첫째로 교리문답은 그 시대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 혹은 공동체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교리문답 작성자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야만 한다. 또한 무엇이 모든 신자들이 알아야 할 본질적인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교리문답을 읽는 것은 그가 어떤 교리를 기본적인이며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둘째로 교리문답은 그 시대 평범한 신자들의 종교의식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기 때문이다. 어느 교리문답이 널리 통용되었다면 그 시대의 신자들의 종교심을 잘 반영했기 때문이라

1) Catechism이라는 용어는 현재 교리문답, 요리문답, 신앙교육서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리문답이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모든 Catechism이 문답의 형태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앙교육서라는 용어가 보다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신앙교육서라는 표현은 Catechism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교육을 위한 자료들까지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여겨진다. 또한 본고에서 분석하는 세 가지 Catechism은 모두 문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교리문답이란 용어를 선택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리문답은 엘리트의 신학적 사고와 대중의 종교 의식 사이를 중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문답을 읽는 것은 신학자의 신학적 사유와 평신도의 경건의 표현, 종교의 사상과 실천 모두를 보는 것이다.<sup>2)</sup>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교리문답에 대한 연구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성격과 특징을 들여다보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들린다. 숫자가 줄어들면서 어린이부서와 청소년부서가 통합되거나 폐지되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여러 교단에서 총회 주제를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와 같은 차세대를 염두에 둔 주제를 정하기도 했다.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 노력들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잃어버린 보물인 교리문답을 되찾고 그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필자는 교리문답 교육의 회복이 교회교육 위기에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교리문답의 신학과 영성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담고 있는 세 교리문답을 비교 연구한다. 루터의 소교리문답, 후프마이어에 의해 작성된 재세례파의 교리문답, 칼뱅의 제네바교리문답의 비교를 통해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또한 프로테스탄트 내의 다양한 입장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출판 시기를 본다면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이 루터의 소교리문답보다 앞서는 하지만,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이 루터의 신학적 견해를 비판하고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기 쉽도록 루터의 것을 먼저 다루고 후버마이의 것을 뒤에 다루었다. 그런 다음에 칼뱅의 제네바교리문답을 소개하였다. 각 교리문답은 동기와 배경, 내용, 의미

와 영향력이라는 제목 하에 정리하였다. 이런 제목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보다 이해를 쉽게 하도록 돕기 위해 이 틀을 따라서 정리하였다.

## II. 루터의 소교리문답(1529)

### 1. 동기와 배경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1529년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을 동시에 출판하였다. 그는 소교리문답은 일반 신자들이 가정에서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고, 대교리문답은 어른들과 성직자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였다. 이처럼 독자층이 달랐기 때문에 분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소교리문답에서는 복잡한 교리적 변증은 다루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분량이 적고 문답형식으로 기술되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소교리문답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오즈먼트는 루터의 소교리문답이 “종교개혁을 강화시킨 소책자” 중 하나라고 평가하였다.<sup>3)</sup> 사실상 루터는 이 책자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했고, 자신의 소교리문답을 다른 어떤 저작보다 더 주의 깊게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품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루터는 이 교리문답을 공부하기를 거부하거나 경시하는 자들에게는 “음식을 주지 말 뿐만 아니라 개와 같이 쫓기게 하고 배설물을 퍼부어도 마땅하다.”고 단언하였다.<sup>4)</sup> 소교리문답은 루터의 신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출발점이 될 것이며, 루터가 무엇을 본질적인 혹은 비본질적인 교리로 여겼는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유용한 자료이다.

2) Denis Janz, "Introduction," *Three Reformation Catechisms: Catholic, Anabaptist, Lutheran*, ed. Denis Janz (New York and Toronto: The Edwin Mellen Press, 1982), 3-6.

3) Steven Ozment, *The Reformation in the C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22.

4) Martin Luther, 지원용 편, "대교리문답서," 『루터선집』 9권 (서울: 권콜디아사, 1983), 417-418.

루터는 서문의 첫머리에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왜 교리문답을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한다. 루터는 1528년 작센 지방의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여 돌아보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쉽고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를 절감하고 교리문답을 준비하였다. “최근에 내가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목격한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 나는 간절하면서도 쉬운 교리문답, 즉 그리스도교 가르침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게 되었다.”<sup>5)</sup> 이와 같이 루터의 교리문답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동기와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무지가 내 백성을 망하게 한다.”(호세아 4:6)며 한탄했다. 루터는 작센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호세아의 탄식을 절감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십계명도, 사도신조도, 주기도문도 알지 못했다. 더욱이 영적 어두움이 대물림되고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백성들만이 아니라 성직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교회탐방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성직자는 십계명을 모를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책을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다. 작센 오버라드라우의 사제는 3년 동안 미사를 한 번도 거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성직자는 화재로 성서를 잃은 후에 26년 동안 성서 없이 지내기도 했다.<sup>6)</sup> 강단과 청중석이 마찬가지로 있었다. 루터는 이 무지를 몰아내고자 교리문답을 작성하였다.

특히 루터는 소교리문답에서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의 태만과 나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다. “당신이 감독으로서 부끄럽게도 백성들을 방치하고, 당신의 의무를 이처럼 소홀히 하다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는가?”<sup>7)</sup> “당신이 그와 같은 엄숙한 훈계를 하지 않거나 가

5) Martin Luther, “The Small Catechism,” *Three Reformation Catechisms: Catholic, Anabaptist, Lutheran*, 181.

6) Arthur H. Drevlow, “The History,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Luther’s Catechisms,” *Concordia Journal*, Vol. 5, No. 5 (September 1979), 172-173.

7) Martin Luther, “The Small Catechism,” 181.

중스러운 법을 백성들에게 부과한다면, 그리하여 백성들이 성례를 모독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잘못이다. 당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태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은 모두 목회자요 설교자인 당신들에게 달린 문제이다.”<sup>8)</sup> 루터는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중심에서 있는 목회자들은 중세 로마교회의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책임을 맡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목회자와 교사들이 올바른 신앙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가정(家長)이 확실한 지식과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온 식구들은 영똥한 사설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 루터는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에서 맡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한지를 엄중히 말하고 있다.

## 2. 내용

루터는 1520년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한다. 율법은 인간의 질병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신조는 어디서 약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주기도문은 그것을 어떻게 찾아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sup>9)</sup> 소교리문답에서 루터는 자신이 말한 이 순서를 따라 서술하고 있다. 그 후에 세례, 고백, 성만찬의 성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소교리문답은 먼저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2-17절(비교 신명기 5:6-21)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아마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루터의 십계명 구분이 매우 생소하게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루터의 소교리문답에 나타난 십계명의 구분이 개혁교회의 십계명 순서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루터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는 출애굽기 20:3-6절을 첫째 계명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개혁교회는 20:3절

8) Martin Luther, “The Small Catechism,” 187.

9) Denis Janz, “Introduction” *Three Reformation Catechisms: Catholic, Anabaptist, Lutheran*, 15.

을 첫째 계명으로 20:4-6절을 둘째 계명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루터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는 개혁신교회에서 열 번째 계명으로 여기는 20:17절을 둘로 나누어 아홉째와 열째 계명으로 구분하여 생각한다. 반면 유대교는 십계명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20:2절을 첫째 계명으로, 3-6절을 둘째 계명으로, 17절을 열 번째 계명으로 삼는다. 이처럼 십계명을 구분하는 것에서도 루터교회, 개혁신교회, 유대교가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루터는 소교리문답에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문답형식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십계명의 뜻을 묻는 대답에서 항상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fear and love) 합니다.”는 말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칼뱅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sup>10)</sup> 루터는 특별히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대답에서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fear, love, and trust) 합니다.”라고 말하여 신뢰를 포함시킨다.

다음으로 사도신조를 다룬다. 소교리문답에서 사도신조는 세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창조(creation),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redemption), 성령의 성화(sanctification)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 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마지막은 항상 “이것이 진실로 진리입니다.”로 끝을 맺는다. 교리문답에서는 핵심적인 사항들만을 간단한 형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신조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나 해석도 전통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가셨다”(He descended into hell)는 구절에 대해 칼뱅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낮아지심에 속하며 영혼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고 말하지만, 루터는

이것이 악마를 정복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의 선포라고 보았다. 칼뱅은 그리스도가 죽은 후 바로 음부에 내려갔다고 했으나, 루터는 그리스도가 살아난 후에 내려갔다고 하였다.<sup>11)</sup>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교리문답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를 않는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이어진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서론 부분과 뒤이어 나오는 일곱 가지 간구(“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결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루터는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에 단지 먹을 것만이 아니라 경건한 배우자와 지도자, 훌륭한 정부, 적당한 기후, 선한 친구, 믿을 만한 이웃까지 포함시킨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인 것이다.

소교리문답은 십계명과 사도신조와 주기도문에 이어서 세례의 성례를 다룬다. 루터는 여기에서 세례의 본성, 세례의 유익, 세례의 효력, 물세례의 의미를 묻고 답한다. 세례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물의 세례이다.(마 28:19) 세례의 유익은 죄의 용서,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마 16:16) 세례의 효력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일으키는 것이다. 말씀이 없으면 물은 물일뿐이지 세례는 아니다. 세례는 은혜로운 생명의 물이며 성령 안에서 중생의 씻음이다.(딤후 3:5-7) 물세례의 의미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롬 6:4) 이처럼 루터는 성서의 가르침에 근거

1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1권, 2장, 1절(이후로는 I, 2, 1로 표기한다).

11) 지원용, “음부에 내리신 자에 대하여,” 『루터선집』 9권, 405-408.

하여 세례의 본성, 유익, 효력, 의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의 성례를 다룬다. 성만찬이란 빵과 포도주 ‘아래’(under) 우리에게 주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이다. 성만찬 안에서 죄의 용서, 생명, 구원이 주어진다. ‘육체적으로’(bodily)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용서가 주어지며 바로 이들이 성만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사용되는 단어에서 루터의 독특한 성만찬 이해가 장황하지는 않지만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루터의 소교리문답에는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문, 세례와 성만찬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먼저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 사이에 “죄의 고백과 사면”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교리문답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교육해야 할 가정들을 위하여 “가장이 가르쳐야 할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가장이 가르쳐야 할 식전기도와 식후기도”가 예로써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분과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표”(table of duties)가 제시된다. 이 의무표에는 “감독, 목회자, 설교자의 의무,” “교사와 목사에 대한 신자들의 의무,” “위정자의 의무,” “백성의 의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인, 종, 청년, 홀로 된 여인, 신자들의 의무” 등이 제시되어 있다.

### 3. 의미와 영향력

루터가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을 출판한 해인 1529년은 로마가톨릭과 종교개혁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였다. 1529년 슈파이어 의회에서 로마 교회와 종교개혁 진영의 갈등은 더욱 커졌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이 해였다. 뿐만 아니라 1529년 헤센의 필립(Philipp of Hessen)의 요청으로 열린 종교개혁 진영 사이의 회담인 마르부르크 회의도

별다른 결실 없이 루터주의자들과 츠빙글리주의자들의 차이만을 확인하고 끝났다. 이처럼 혼란스럽던 때에 교리문답의 필요성은 더욱 크고 절실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리문답의 작성이 단지 상황 때문에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루터는 교리문답을 작성한 1529년 이전에 이미 십계명과 사도신조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였다. 루터의 동료 요하네스 부겐하겐(Johannes Bugenhagen)도 1년에 4차례 8회 평일의 설교를 통해 교리문답을 가르쳤다. 루터는 1528년에만 5월 18~30일, 9월 14~25일, 11월 30일~12월 19일에 교리문답의 주요 내용들에 관하여 설교하였다.<sup>12)</sup> 이것이 1529년 교리문답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루터의 소교리문답은 자신의 교구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려는 목회적 노력의 결과였다. 그는 이 절망적 상태가 개선하려면 변화가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공활히 여겨야만 한다. 어린이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종교개혁 정신은 대를 이어 연결될 수 없고 결국 하나의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종교개혁의 영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루터에게 교리문답은 너무도 중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노예의지론』과 더불어 교리문답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저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다른 작품들은 없어지더라도 이 두 가지만은 남기를 바랐다.

12) Arthur H. Drevlow, “The History,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Luther’s Catechisms,” 174. 그리고 Arthur Drevlow, “How Luther Wanted the Catechism Used,” *Concordia Journal* Vol. 7, No. 4 (July 1981), 153.

### III.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1527)

#### 1. 동기와 배경

로마가톨릭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시작된 16세기 교회개혁은 결코 단선적이거나 획일적인 운동이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지닌 운동이었다. 루터파, 개혁파, 재세례파, 성공회 등이 각자 저마다의 개혁을 주창하고 나섰다. 그 중에서도 재세례파라 불리던 일단의 사람들은 비록 소수였기는 하지만 나름의 개혁 원칙과 원리를 내세우며 독특한 방식의 개혁을 지향하였다. 비록 재세례파 안에도 서로 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재세례파 신학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바로 발타자르 후프마이어(Balthasar Hubmaier, 1480/85-1528.3.10.)이다.<sup>13)</sup>

후프마이어는 1480년(혹은 1485년)에 태어나 프라이부르크와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공부하였고, 1512년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루터의 적대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하네스 에크(Johannes Eck)로부터 탁월한 학생으로 인정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급진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공식 교육을 끝까지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그 후 그는 레겐스부르크와 발트슈트에서 설교자로 섬겼으며, 1523년에는 츠빙글리와 함께 취리히에서 벌어진 논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후프마이어가 1524년 출판한 “18개 조항”은 로마가톨릭과의 분명한 결별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해 그는 엘리자베스 휘글리네(Elizabeth Hügline)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그는 믿음은 강요당할 수 없다는 확신을 피력하였으며, 아무리 국가라고 할 지라도 종교적 믿음의 차이 때문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그의 저작에 언제나 등

장하는 그의 모토였다.

그러나 이즈음 후프마이어는 주류 종교개혁신학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점차 재세례파 신앙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1525년 1월 16일에 오이콜람파디우스에 보낸 편지에서 유아세례가 실재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신자의 세례를 옹호하고 있다. 그는 세례가 구원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필수요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유아세례 문제로 인해 츠빙글리와 후프마이어 사이에는 책자를 통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한때 고문에 굴복하여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문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생의 마지막에는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결국 1528년 3월 10일 화형을 당하였다. 윌리엄 에스텝은 “발타자르 후프마이어 박사는 재세례파 창공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별들 중 하나였다.”<sup>14)</sup>라고 평가하였다.

후프마이어는 로마가톨릭뿐만 아니라 주류 종교개혁자들과도 다른 세세례파의 ‘새로운’ 신앙과 경건을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던 중 마침 이전에 니코폴리스(Nikopolis)의 주교였고, 당시 니콜스부르크(Nikolsburg) 교회의 회원인 마르틴(Martin Goschl)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후프마이어는 이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1526년 말에 교리문답을 작성하였고, 1527년 초에 출간하였다. 후프마이어는 레온하르트(Leonhart)와 조카 한스(Hanns)의 대화 형식으로 교리문답을 작성했는데, 이들은 니콜스부르크의 행정관들이었다. 그는 이 교리문답이 신앙의 도리를 알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빠져 있는 오류와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원했다. 이런 동기에서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 “그리스도교 교리문답: 세례 받기 전 모두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작성되었다.

13) 윌리엄 에스텝은 그의 책 *The Anabaptist Story*에서 발타자르 후프마이어를 소개하기 위해 제4장 전체를 할애한다. William R. Estep, 정수영 옮김, 『재침례교도의 역사』(서울: 요단출판사, 1986), 95-122.

14) William R. Estep, 정수영 옮김, 『재침례교도의 역사』, 95.

## 2. 내용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 표지에는 그의 모토인 “진리는 파괴될 수 없다”(Truth is Indestructible)는 표어가 붙어있고, 발타자르 후프마이어 박사에 의해 1526년 니콜스부르크에서 작성되었으며, 1527년 프로샤우어(Froschauer)라고 알려진 조르그(Simprecht Sorg)에 의해 니콜스부르크에서 인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교리문답의 작성을 요청한 마르틴에 대한 인사로 시작하고 있다.

교리문답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져 있다.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에 대해, 죄를 알게 해주는 십계명의 율법에 대해, 고백과 기도를 통한 회개에 대해, 주기도문에 대해, 복음에 대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에 대해, 사도신조에 대해, 성령세례·물세례·피세례에 대해, 특히 왜 유아세례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교회의 권징과 파문에 대해 논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성만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로마가톨릭교회의 미사와 화체설, 로마교회와 루터교회의 공간적임재설을 비판하면서 상징과 표지로서의 성만찬을 옹호한다. 이어서 죄의 고백에 대해, 금식에 대해, 마리아에 대해, 성화상에 대해, 설교와 찬양에 대해, 자유의지에 대해, 종말에 대해, 영생에 대해, 고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후프마이어는 자신의 교리문답 첫 부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를 대비시킴으로써 시작한다. 우리는 죄를 율법 특히 십계명을 통해 깨닫게 되며, 고백과 기도 특히 주기도를 통해 죄를 회개하게 된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을 통해 알 수 있다. 후프마이어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 은혜로운 호의,

선한 뜻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dead faith)일 뿐이다. 실천을 통한 열매가 있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은 산 믿음(living faith)이다.<sup>15)</sup> 후프마이어는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를 삶의 실천이 결여된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런 가르침은 반쪽진리(half-truth)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sup>16)</sup> 그리고 이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백해 온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후프마이어는 자신의 교리문답 첫 부분의 전반부에서 전통적으로 교리문답이 다루고 있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조를 모두 다루었다.

후프마이어 교리문답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바로 세례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후프마이어가 세례의 세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세례에는 성령세례(요3:5), 물세례(마28:18이하, 막16:15이하), 피의 세례(눅12:50)가 있다.<sup>17)</sup> 물세례는 성령세례의 외적인 표지이며,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성례이다. 반면 피의 세례는 죽을 때까지 매일 육체를 죽이는 삶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이후에 세례가 있다는 것이다. 재세례파의 신학자답게 후프마이어는 유아세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가 아니며 세례에 대한 왜곡이며 세례라는 이름에도 걸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물세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 즉 공개적으로(openly) 자신의 말로(verbally)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프마이어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15) Balthasar Hubmaier, “A Christian Catechism,” *Three Reformation Catechisms: Catholic, Anabaptist, Lutheran*, 146. 또는 Balthasar Hubmaier: *The Theologian of Anabaptism*, trans. and ed. H. Wayne Pipkin and John H. Yoder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9), 348.

16) Balthasar Hubmaier, “Freedom of the Will, I,” *Balthasar Hubmaier: The Theologian of Anabaptism*, 428.

17) Balthasar Hubmaier, “A Christian Catechism,” 147-150.

교회에 대한 문답에서 후프마이어는 형제애적 교정(brotherly correction), 즉 파문(ban)의 권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파문은 재세례파 교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가치 중 하나이다. 조지 윌리엄스가 아나뱃티즘(anabaptism) 운동을 아나뱃니즘(anabaptism) 운동이라고까지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후프마이어는 교리문답의 첫 부분을 요약하면서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대로 물세례가 시행되지 않는 곳에서는, 누가 형제와 자매인지 알 수가 없으며, 교회도 없으며, 형제애적 교정이나 권징도, 파문도, 성만찬도, 그리스도 교적 존재와 실재도 없다.”<sup>18)</sup>고 주장한다.

이제 후프마이어 교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후프마이어는 먼저 성만찬에 대해 묻고 답한다. 그는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가톨릭의 화체설 교리와 포도주는 주지 않고 빵만 주는 일종배찬(one kind distribution)을 비판한다. 또한 희생제사로서의 미사 개념을 거부하고, 로마가톨릭과 루터주의의 공간적 임재 개념을 비판한다. 그 후에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들(commemorative signs)”이고, 성만찬은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지(the greatest sign of love)”이고, “형제애적 사랑의 충실한 표지(a dutiful sign of brotherly love)”이다.<sup>19)</sup> 성만찬의 의미에 관해서는 츠빙글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후프마이어는 로마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교정을 하고 있다. 죄의 고백과 관련하여 사제나 수도승에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음식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금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친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녀가 순결한 동정녀이고 하나님의 어머니이기에 그녀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후프마이어는 “당신이 정말 마리아를 공경하고 마리아에게 복종하고 싶다면, 그녀나 성인에게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라.”<sup>20)</sup>고 말한다. 이것이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다.

후프마이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행하라고 권면한다. 단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메노 시몬스의 말처럼 문제는 믿음(faith)이 아니라 따름(following)이다. 후프마이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질 않는다. 어떤 이는 듣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이는 이해하지만 따르지 않는다. 어떤 이는 열심을 다해 따른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sup>21)</sup>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야말로 우리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길을 걷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3. 의미와 영향력

1527년 초에 출판된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은 최초의 재세례파 교리문답으로서 초기 재세례파의 영성과 신학을 충실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sup>22)</sup> 후프마이어(1480/85-1528)는 오늘날 재세례파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메노나이트의 아버지인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보다도 훨씬 초기 재세례파 운동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후프마이어에게는 고난 받는 집단인 재세례파 공동체의

18) Balthasar Hubmaier, “A Christian Catechism,” 156.

19) Balthasar Hubmaier, “A Christian Catechism,” 157-158.

20) Balthasar Hubmaier, “A Christian Catechism,” 162.

21) Balthasar Hubmaier, “A Christian Catechism,” 173.

22) Arnold Snyder, “Modern Reality and Anabaptist Spirituality: Balthasar Hubmaier’s Catechism of 1526,” *The Conrad Grebel Review* 9/1 (Winter 1991), 41.



입문자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성서적이고 복음적인지를 가르쳐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재세례파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할 명백한 이유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은 이런 점들에 대한 강조가 담겨있다.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이 재세례파의 중요한 가치들을 담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의 재세례파 공동체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현재형이라고 할 것이다. 그의 교리문답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다시 확인해보자. 첫째로 산 믿음(living faith)에 대한 강조이다. 후프마이어는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믿음만으로' 혹은 '전가된 의'에 만족하지 않는다. 오히려 은총에 의한 구속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둘째로 후프마이어는 세례를 내면적 세례인 성령세례, 외면적 세례인 물세례, 고난의 세례인 피의 세례로 나누고 있다. 시간적 순서나 중요성에서 가장 앞서는 것은 성령세례이다. 성령의 내면적 세례는 믿음을 낳는다. 믿음에 뒤따르는 것이 외적인 물세례이다. 성령을 통한 내면적 중생과 물의 외면적 증거에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피의 세례이다. 셋째로 제자도에 대한 강조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 부름 받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쁨과 인내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락함은 그릇된 영성이며,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표지이다. 제자도는 재세례파 영성에서 핵심요소이다.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초점이 있다면,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강조가 있다. 첫 부분이 믿음을 고백한 후 받는 세례에 중점이 있다면, 둘째 부분은 사랑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 성만찬에 중심이 있다. 첫 부분이 교리적 질문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면, 둘째 부분은 재세례파의 실천의 특징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후프마이어에게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요체이고 본질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이 핵심으

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 IV. 칼뱅의 제네바교리문답

(제1차 1537/1538, 제2차 1542/1545)

##### 1. 동기와 배경

###### 1) 제1차 제네바교리문답이 나오기까지

칼뱅(Jean Calvin, 1509-1564)이 제네바에서 교회개혁을 추구하면서 감당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종교개혁 정신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올바른 교리문답 교육이었다. 칼뱅이 1536년 8월 한여름 제네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네바는 막 프로테스탄트 도시로 전환하여 새롭게 출발하고 있었다. 1536년 5월 21일 제네바가 시민총회에서 프로테스탄트 도시가 되기로 천명한 후 그곳에서는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이 제네바 교회개혁 운동을 이끌고 있었다. 파렐은 바로 이런 시점에 젊은 칼뱅이 제네바에 들린 것이 결코 우연이아니라 여겼고, 칼뱅을 헐박하고 회유하여 제네바 교회개혁 운동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제네바는 칼뱅에게 운명의 도시가 되었다.

칼뱅과 파렐은 제네바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선 하나님의 도시가 되고, 제네바 교회가 질서 잡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바른 신앙고백이다. 칼뱅과 파렐은 이전 로마가톨릭교회와는 다른 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그리하여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제네바신앙고백을 작성하여 1536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제네바의 시민들이 이 신앙고백에 모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당한 반대가 뒤따랐다. 칼뱅과 파렐이 모두 프랑스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면, 스위스 제네바의 토착세력들에게는 이들이 못마땅했을 것이 분명하고, 이들의 요구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논란이 있었지만 신앙고백은 결국 의회의 비준을 받았다.

둘째는 교회헌법이다. 칼뱅은 1537년 1월 16일에 “제네바의 교회와 예배의 조직에 관한 조항들”(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큰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몇몇 주제들에 대해서는 칼뱅도 타협해야만 했다. 칼뱅은 매주 성만찬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거절되었고, 교회가 권징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나 결혼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칼뱅이 원하는 내용들은 이후 칼뱅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후에 작성된 1541년과 1561년 교회헌법에 반영되었다.

셋째는 교리문답이다. 칼뱅은 교회의 신앙과 생활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 신앙의 간략한 요약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였다. 칼뱅은 이미 1536년 바젤에서 『기독교강요』 초판을 발행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길고 내용도 다소 어렵기 때문에 평신도들, 특별히 젊은이를 위한 새로운 작업이 필요했다. 따라서 『기독교강요』 초판의 핵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정리하여 1537년 초에 제1차 제네바교리문답이 프랑스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1538년에 라틴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제1차 제네바교리문답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은 이것이 단지 프랑스나 제네바와 같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지역에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것은 제네바교리문답의 라틴어판 제목에도 잘 드러난다. “교리문답 혹은 그리스도교 종교의 강요, 최근 복음으로 새롭게 탄생한 제네바교회의 전적인 승인을 통해 받아들여졌고, 이전에 프랑스로 출판되었지만 신앙의 진정성이 각처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이제 라틴어로 출판됨.”<sup>23)</sup> 칼뱅은 이 교리문답서 교육을 통해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이 대를 이어 전달되기를 원했다.

## 2) 제1차 제네바교리문답에서 제2차 제네바교리문답까지

칼뱅과 파렐의 야심찬 제네바 교회개혁의 청사진은 불행하게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개혁자들을 반대하는 토착세력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제네바의 정치적 독립에 영향을 미쳤던 베른의 입김까지 더해져 결국 두 사람은 1538년 4월 제네바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하지만 제네바의 정치적·종교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제네바 의회는 당시 스트라스부르에 머물고 있던 칼뱅을 다시 초청하게 된다. 칼뱅은 제네바로 돌아가기를 꺼렸으나 여러 동료 개혁자들의 간곡한 권유와 제네바 교회를 향한 불타는 마음 때문에 1541년 제네바의 초청을 받아들인다. 제네바로 귀환한 칼뱅은 3년 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역들, 교회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교리문답을 작성하는 일에 곧바로 착수하였다.

칼뱅은 제1차 제네바교리문답(프랑스어 1537, 라틴어 1538)이 어린이들에게는 여전히 너무 어렵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이번에는 주제별 접근보다는 전통적인 문답 형식을 따라 제2차 제네바교리문답(프랑스어 1542, 라틴어 1545)을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제1차 교리문답과 제2차 교리문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제1차 교리문답이 33개 주제별 항목으로 제시된 데 반해서, 제2차 교리문답은 55장 373개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차 교리문답은 루터의 소교리 문답처럼 율법, 사도신조, 주기도, 성례의 순서를 따르고 있지만, 제2차 교리문답은 사도신조에 근거한 신앙, 율법, 주기도, 성례의 순서로 전개된다. 이것은 『기독교강요』의 구조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제1차 교리문답에는 13번째 항목에서 선택과 예정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제2차 교리문답에서는 이 교리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제1차 교리문답에서 다루어진 인간(4항), 인간적 전통(31항), 교회에서의 출교(32항), 권

23) 1537년 프랑스어판은 Paul T. Fuhrmann에 의해 *Instruction in Faith*라는 제목으로 영역되었고, 1538년 라틴어판은 Ford L. Battles에 의해 *Catechism or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이란 제목으로 영역되었다.

력자들(33항) 등과 같은 신학적 주제들 역시 제2차 교리문답에서는 “배경 속으로 물러나고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sup>24)</sup> 이처럼 제1차와 제2차 교리문답 사이에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칼뱅에 의해 제2차 제네바교리문답이 작성됨으로 말미암아 제1차 교리문답은 사실상 우리에게 거의 잊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칼뱅 연구자들은 제1차 교리문답이 나름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어 『기독교강요』의 편집자인 맥닐(John T. McNeill)은 제1차 교리문답을 “『기독교강요』의 중심적 가르침에 대한 탁월한 요약”이라 말하고, “이 저술은 응축되고 간결하게 표현된 걸작이며, 칼뱅의 가르침의 열쇠로서 탁월하다.”고 평가한다.<sup>25)</sup> 프랑스어판 교리문답의 영어 번역자인 푸르만(Paul T. Fuhrmann)도 제1차 교리문답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제1차 교리문답은 칼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경건의 가장 초기의, 기본적인, 확고한 핵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초기 개혁교회의 성소를 열 수 있고, 그 단순한 아름다움과 강력한 힘을 볼 수 있다. ... 더욱이 독자들은 이 교리문답의 사상이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유감스럽지만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주의에는 결여된 좋은 특성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흐릿하고 냉랭한 신앙과는 대조적으로 그 당시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지성을 밝히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sup>26)</sup>

24) Mattias Freudenberg, “Catechisms,”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Selderhuis, 김귀탁 옮김, 『칼빈핸드북』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421. 그리고 황대우,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위로: 제2제네바 신앙교육서 1-15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22문답 비교연구,” 『개혁논총』 29 (2014): 245-275도 참고하라.

25)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140.

26) I. John Hesselink, *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41.

라틴어판 교리문답의 영어 번역자인 배틀즈(Ford. L. Battles)에게도 제1차 교리문답은 이것이 『기독교강요』 초판(1536)과 2판(1539)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제1차 교리문답은 칼뱅의 사상에 대한 간략하며, 분명하고, 간명한 요약일 뿐만 아니라, 젊은 칼뱅의 사상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널리 쓰이고 활용된 칼뱅의 교리문답서는 제2차 제네바교리문답서이다. 1541년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그는 1537년 제1차 교리문답을 보다 확장시키고 문답형식으로 다시 정리하여 1542년(혹은 1541년 말)에 제2차 제네바교리문답을 출판하였다. 주된 목적은 초대교회의 교리문답 교육을 회복하여, 그 가르침을 10-15세의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도록 제시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분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 한 몸과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하여 신앙의 핵심을 한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칼뱅은 1545년 보다 많은 교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교리문답을 라틴어로 출판하였는데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사이에 거룩한 친교를 지키고, 교회들이 신앙에 있어서 일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이후 개혁교회 교리문답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 2. 내용

칼뱅은 제네바교리문답의 서문인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이 글의 작성 동기가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교 교리로 올바르게 키우는 것”<sup>27)</sup>임을 밝히고 있다. 칼뱅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교회에서 부지런히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서문인 “동 프리시아에서 복음

27)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J.K.S. Rei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88.

의 순수한 가르침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에게”라는 글에서 칼뱅은 이 교리문답의 목적이 “신앙의 일치가 우리 가운데서 빛나도록 하기 위함”<sup>28)</sup>이라고 밝힌다. 칼뱅은 “이와 같이 혼란하고 분열된 그리스도교계에서, 공간적으로는 널리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교 교리에서 일치하는 교회들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공적 증언을 가지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sup>29)</sup> 칼뱅은 동일한 교리문답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친교의 엄숙한 상징”이라고 말한다.<sup>30)</sup> 이처럼 제네바교리문답은 어린이들을 교육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개혁교회의 보편적 일치를 위해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제2차 제네바교리문답은 전체가 55장 37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칼뱅은 한 주에 한 장씩 교리문답을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도록 구성하였다. 교리문답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신앙에 관한 부분은 21장 130문항까지로 사도신조의 내용을, 율법에 관한 부분은 21장 131문항부터 33장 232문항으로 십계명의 내용을, 기도에 관한 부분은 33장 233문항부터 44장 295문항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성례전에 관한 부분은 44장 296문항부터 55장 373문항까지 말씀과 성례전(세례와 성찬)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sup>31)</sup>

신앙과 관한 부분에서 칼뱅은 제일 먼저 1항에서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2항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칼뱅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요점을 담고 있는 사도신조에 대해 질문과 대답을 이어간

28)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88.

29)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89.

30)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90.

31) 테오도르 베즈는 마지막 성례전 부분을 나누어서 296문항부터 308문항을 말씀에 관한 부분으로, 309문항부터 373문항을 성례전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교회와 거룩한 은총에 대해 요점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18-20장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문답을 덧붙임으로써 프로테스탄트의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를 옹호한다.

율법에 관한 부분에서는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 먼저 칼뱅은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의무를 규정한 1-4계명과 인간관계의 의무를 규정한 5-10계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밝힌다. 그런 다음 십계명의 핵심적 내용과 의미를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밝히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루터의 소교리문답과 비교할 때 내용상의 차이보다는 구조상의 차이가 눈에 띈다. 이런 까닭에 개혁교회는 루터교회와는 다른 십계명의 분류를 갖게 되었다. 칼뱅은 결론적으로 율법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는 의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구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 칼뱅은 기도는 하나님께만 바칠 수 있는 것이지 천사나 성인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로마가톨릭교회의 천사숭배와 성인숭배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칼뱅은 기도할 때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위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중얼거리는 로마가톨릭의 기도 습관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참된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제시한다. 칼뱅은 주기도문이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앞의 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며, 뒤의 세 부분은 우리의 유익과 관계된다고 가르친다.

말씀과 성례전(세례와 성만찬)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칼뱅은 여기서 재세례파에 반대하여 유아세례를 옹호한다. 그는 믿음이 반드시 세례에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아세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로마가톨릭의 희생제사로서의 미사에 반대하고, 빵만 주

는 일종배찬(one kind distribution)을 비판하고 빵과 포도주 모두를 베푸는 이중배찬(two kinds distribution)을 주장한다. 또한 성만찬에서 성령의 비밀스러운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육체적임재설이 아닌 영적임재설을 옹호한다. 그리고 성만찬은 정당하게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집례해야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점검한 후 합당하게(worthy) 성만찬에 참여해야 함을 덧붙인다.

### 3. 의미와 영향력

칼뱅은 1548년 10월 22일 잉글랜드 서머셋 공작인 에드워드 시모어(Edward Seymour)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각하시여,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문답 없이는 결코 보존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알곡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번식하도록 지켜주는 종자와 같기 때문입니다.”<sup>32)</sup> 라고 말하고 있다. 칼뱅은 교리문답이 참된 교회의 보존과 신앙의 대 잇기를 위한 씨앗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담은 교리문답이 없다면 종교개혁은 그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 버릴 수도 있다.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요점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그 신앙에 기초한 참된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칼뱅은 제네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나 다시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교리문답을 작성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칼뱅은 1541년과 1561년 제네바 교회헌법 모두에서 어린이들은 매 주일 정오에 교회에서 교리문답을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3)</sup>

32) Jules Bonnet ed., *Letters of John Calvin*, Vol. II (New York: Burt Franklin, rep. 1972), 191. “Believe me, Monseigneur, the Church of God will never preserve itself without a Catechism, for it is like the seed to keep the good grain from dying out, and causing it to multiply from age to age.”

33) 1541년 교회헌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황정욱·박경수 옮김, 『칼뱅: 신학논문들』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84쪽을 보고, 1561년 교회헌법의 규정을 위해서는 박건택 옮김, 『칼뱅작품

칼뱅의 제네바교리문답은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을 위한 하나의 표준 역할을 하였다. 프랑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에 이르기까지 개혁전통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교리문답이 작성되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준거가 바로 제네바교리문답이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교리문답이 더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뿌리에는 제네바교리문답이 자리하고 있다.

## V. 결론

필자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통해 형성된 개신교의 세 흐름을 대표할 만한 세 교리문답을 살펴보았다. 루터의 소교리문답,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 칼뱅의 제네바교리문답은 루터파, 재세례파, 개혁파 전통을 대표하는 신앙교육서이다. 세 교리문답은 모두 로마가톨릭의 잘못된 신학과 영성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서로 간에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먼저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과 루터나 칼뱅의 교리문답은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루터와 칼뱅은 교리문답의 전통적인 형식을 따라 율법, 사도신조, 주기도, 말씀과 성례를 다루고 있다. 물론 루터와 칼뱅의 교리문답에서 이런 전통적 주제들을 다루는 순서가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한다. 루터는 율법, 신조, 기도, 성례의 순서로 다루고 있는 반면, 칼뱅은 제1차 교리문답에서는 루터와 동일하지만 2차 교리문답에서는 신조, 율법, 기도, 말씀과 성례의 순서로 변경이 일어난다. 칼뱅의 제1차와 제2차 교리문답의 순서가 바뀐 것은 자신의 『기독교강요』를 개정하면서 순서를 재배치하는 것과 연관되어 발생한

변경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와 형식은 동일하다. 하지만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은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고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후프마이어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상징(신앙)으로서 이해한 세례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 부분은 후프마이어가 인간과 이웃의 관계에 대한 상징(사랑)으로서 이해한 성만찬에 중점을 둔다. 그는 교리문답을 통해 재세례파의 신앙과 사랑, 믿음과 실천,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세 교리문답 사이에는 강조점의 차이도 있다. 후프마이어는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받는 신자의 세례에 대해 길게 설명하며, 후에 은총, 자유의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에 비해 루터나 칼뱅은 값없이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은총과 행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어쩌면 각자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세 교리문답의 내용적 관점에서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보다 루터나 칼뱅의 교리문답이 보다 쉽고 더욱 대중적이다. 루터나 칼뱅의 교리문답은 어떤 주제에 대해 후프마이어와 달리 신학적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루터나 칼뱅의 교리문답은 후프마이어의 교리문답보다 청중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더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후프마이어의 경우 로마가톨릭과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해 더 변증적이고 논쟁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리문답(catechism)이란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교육법이다. 문답식 교육방식은 이미 소크라테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무스,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애용되었다. 초대교회 시기에는 교리문답을 담당하여 가르치는 교리문답교사(catechist)가 따로 있었다. 후프마이어, 루터, 칼뱅, 녹스와 같은 종교개혁자들 또한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신앙교육을 실시하였

다. 물론 교리문답에는 약점이 있다. 그리스도교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선택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체 구속사,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삶, 오순절 성령세례와 교회의 탄생과 전개과정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 전체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자연스럽게 무시되고 간과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긴다. 자칫하면 단순화(oversimplification)의 오류나 생략(omission)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문답만을 신앙교육의 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리문답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교리문답 교육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유익하다.

프로테스탄트 교리문답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해주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도록 인도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가진 진정한 공동체가 되도록 결속시켜 준다. 이처럼 교리문답은 그리스도를 위해 군병으로 소집을 받은 신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무장이다. 교리문답 교육은 일종의 적응(accommodation)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적응시키시듯이, 교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해야만 한다. 교리문답 교육은 신앙의 대 잇기이다. 종교개혁의 신앙이 대를 이어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리문답을 통한 신앙의 전승이 중요하다.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교리문답 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일치를 확립하는 수단이다. 동일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같은 신앙으로 연결되고 이어지기 위해서 교리문답은 필수적이다. 물론 각 공동체가 각자의 교리문답을 채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해야 하지만 말이다.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지냈던 종교개혁 고백의 진수인 교리문답 교육을 회복할 때이다. 급격한 시류의 변화와 거친 탁류가 흐르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교리문답 교육이라는 닻을 내려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도 종교개혁의 유산인 교리문답을 설교로 바

꾸어 전하는 도전을 해보고, 교사들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교리문답 교육을 실시해 보자. 다시 시작하자면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그리고 차근차근,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소통의 방법으로, 말과 노래와 연극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리문답 교육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박건택 옮김. 『칼뱅작품선집 V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1.
-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_\_\_\_\_. 『한국교회를 위한 칼뱅의 유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황대우.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위로: 제2제네바 신앙교육서 1-15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22문답 비교연구.” 『개혁논총』 29 (2014): 245-275.
- 황정욱·박경수 옮김. 『칼뱅: 신학논문들』.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Calvin, John.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J.K.S. Rei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Letters of John Calvin, Vol. II, ed. Jules Bonnet. New York: Burt Franklin, rep. 1972.
- Van Dyken, Donald. 김희정 옮김. 『잃어버린 기독교의 보물 교리문답 교육』.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 Drevlow, Arthur H. “How Luther Wanted the Catechism Used.” *Concordia Journal*, Vol. 7, No. 4 (July 1981): 152-157.
- \_\_\_\_\_. “The History,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Luther’s Catechisms.” *Concordia Journal*, Vol. 5, No. 5 (September 1979): 172-177.
- Estep, William R. 정수영 옮김. 『재침례교도의 역사』. 서울: 요단출판사, 1986.
- Freudenberg, Mattias. “Catechisms.”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Selderhuis. 김귀탁 옮김. 『칼빈핸드북』.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Hesselink, I. John. *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Hubmaier, Balthasar. “A Christian Catechism.” *Three Reformation Catechisms: Catholic, Anabaptist, Lutheran*, ed. Denis Janz. New York and Toronto: The Edwin Mellen Press, 1982.
- \_\_\_\_\_. “Freedom of the Will, I.” *Balthasar Hubmaier: The Theologian of Anabaptism*, trans. and ed. H. Wayne Pipkin and John H. Yoder.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9.
- Luther, Martin. “The Small Catechism.” *Three Reformation Catechisms: Catholic, Anabaptist,*

Lutheran. ed. Denis Janz. New York and Toronto: The Edwin Mellen Press, 1982.

\_\_\_\_\_. 지원용 편. “대교리문답서.” 『루터선집』. 9권. 서울: 키클디아사, 1983.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Ozment, Steven. *The Reformation in the C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Volume 1: 1523-1552. ed. James T. Dennison, Jr.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8.

Scharffenorth, Gerta. “The Ecumenicity of Luther’s Catechism.” *Mid-Stream*. 23/2 (April 1984): 162-175.

Snyder, Arnold. “Modern Reality and Anabaptist Spirituality: Balthasar Hubmaier’s Catechism of 1526.” *The Conrad Grebel Review*. 9/1 (Winter 1991): 39-51.

Wengert, Timothy. “Forming the Faith Today through Luther’s Catechisms.” *Lutheran Quarterly*. Vol. 11 (1997): 379-396.

Williams, George H. *The Radical Reformation*. Truman State Univ. Press, third edition 2000.

## 취리히 시에 남겨진 종교개혁의 유산: 16세기 『결혼법령』을 중심으로

권선중 (취리히 대학 역사신학 박사과정)

### I. 서론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Wir sind Protestanten!)<sup>1)</sup> 지난 7월 스위스 대표적 언론기관인 Neue Zürcher Zeitung에서 발간하는 역사 정기간행물의 제목이었다. “어떻게 종교개혁이 스위스를 부하게 만들었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종교개혁이 스위스 사회에 미친 경제적 공헌<sup>2)</sup>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였다. 13세기부터 연맹체제로 시작되었던 스위스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칸톤(Kanton, 州)과 로마 가톨릭 칸톤으로 나뉘어 서로 다르게 발전하였다. 칼뱅의 직업 소명설이나 근면정신은 개신교 칸톤에 영향을 주어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19세기 본격적인 스위스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 Martin Beglinger, “Wir Protestanten.” Wie die Reformation die Schweiz reich gemacht hat.: in *Neue Zürcher Zeitung Geschichte Nr. 2 Juli* (Neu Zürcher Zeitung, 2015), 24-39.

2) 위의 책, 25쪽. 현재 유럽의 경제사정은 개신교가 우세한 북유럽과 로마가톨릭이 우세한 남유럽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북유럽은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세계 제 1의 복지국가로 정평이 나 있는 반면에 남유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흥미롭게도 이 글에서는 유럽의 경제적인 차이를 기후나 국민성 등 환경적 사회적인 요소가 아닌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의 차이 즉 종교적인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